

중 국, 1993년 국방예산 15%증액 ... 군비증강 가속화



지속 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주변국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93년도 국방예산을 92년도보다 14.8% 늘어난 4백25억 원(6조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체 정부예산이 6.8% 증가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대폭 증액된 사실에 주변국의 측각이 집중되고 있다.

유중리 중국 재정부장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속개된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1차 본회의(3월 16일)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이

러시아, 아시아 무기市場 공략 ... MiG-29 등 덤핑판매 제의

아시아 각국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 판매활동이 최근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모스크바의 군사소식통들은 최근 러시아가 경제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해외로의 무기판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주로 미국 무기체제로 갖춰진 아시아국가들을 공략하고 있으며, 미국도 덤핑가격으로 맞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군비경쟁이 가열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츠코이 러시아부통령은 최근 말레이시아를 방문, 저렴한 가격으로 러시아製 첨단무기를

러한 국방예산은 총 4천7백30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출의 10분의 1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북경의 군사전문가들은 군사비 증액과 관련해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경제개혁과의 군사비 절감 추진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90년대를 통해 매년 최소한 10%선의 증가를 보장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군 지도층은 복잡한 국제정세에서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리펑 수상도 3월 15일 중국군을 차츰 현대화해 『상황이 허용하는한 최강의 전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중국은 최근 몇년 동안 러시아로부터 신형 항공기와 첨단 군사기술을 사들이고, 遠洋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등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중국의 야심찬 군비확장은 냉전이 소멸되고 민족주의의 기운이 특히 뜨물아지고 있는 주변 아시아 각국에 자위에 대한 필요성을 점증시켜 세계적 군축 분위기속에 유독 아시아만은 군비확장이라는 逆현상이 벌어지게 하는 최대 動因이 되고 있다.

판매할 용의가 있다고 제의했으며, 이에따라 말레이시아 대표단이 MiG-29 18대, MI-35 헬기 등 총 7억6천만불 상당의 무기구매협상을 위해 곧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덤핑으로 제의하는 MiG-29 전투기

